

‘악기와 사랑’에 빠진 충남 아산 시민들 아산시 ‘1인 1악기 운동’ 지원사업



1 오세현 아산시장(가운데 노란 옷)이 음악 동아리 회원들과 난타 연주를 하고 있다.
2 아코디언을 연주하는 시민 3 오카리나를 연주하는 시민

충남 아산시는 아산 시민 누구나 원하는 악기를 배울 수 있는 ‘1인 1악기 운동’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1인 1악기 운동’은 문화예술 교육 여건이 열악한 지역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자 시 혁신 정책 중 하나로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악기 연주를 배우고 싶은 시민이 5명 이상으로 동아리를 꾸려 시에 요청하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맞춰 강사를 보내주는 ‘찾아가는 음악 선생님’ 서비스다.

문화예술 교육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주민을 위한 것으로, 지원 악기 종류도 기존 14종에서 22종으로 늘려 피아노와 바이올린, 장구와 같은 익숙한 악기부터 바투카타, 칼림바, 핸드벨 등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악기까지 다양하다.

시는 생활문화예술 동아리 거리공연(버스킹) 등 소규모 공연 활동도 지원하고 있다. 각 동아리는 현충사와 온양민속박물관 등 지역 명소에서 공연을 펼치며 지역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동아리 인원은 운영 첫해인 2019년 24개 팀 226명에 불과했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신청이 쇄도해 올해 들어서는 70개 팀 612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1인 1악기 참여자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 95%가 ‘아주 만족한다’고 답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문화예술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술인의 일자리 창출에 효과를 거두었다. 시는 생활문화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 올해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대회에서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문화소외계층 동아리에 대한 지원도 늘었다. 악기를 배우기 어려운 문화 소외 지역의 동아리에는 물론 노인과 장애인, 탈북민 등으로 구성된 다양한 동아리에 강사 파견을 지원하고 있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아산은 경제 수준과 비교해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하다”면서 “앞으로 음악뿐 아니라 미술과 무용·문학 등 지원 분야를 확대해 더 많은 시민이 균등한 문화·예술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온양온천
Onyang Hot Spring



현충사
Hyeonchungsa Shrine



아산외암민속마을
Asan Oeom Folk Village



신정호수공원
Sinjungho Lake P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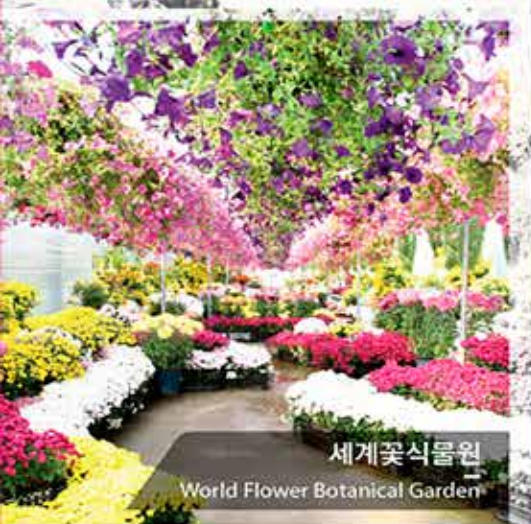
아산 관광 10선 *아산이란
100년의 시간*

너와 나
함께하는
아산
여정! 

 아산 시



은행나무길
Ginkgo Stre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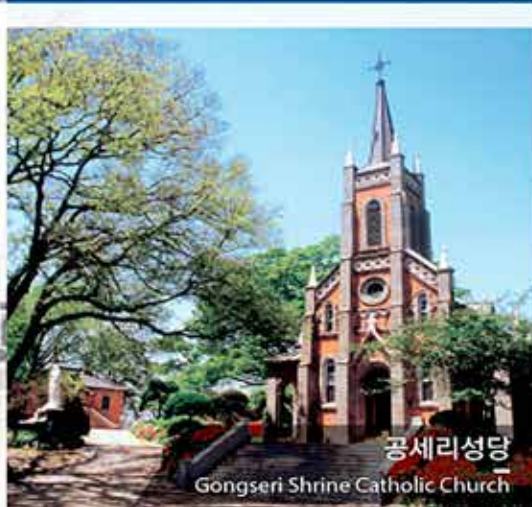
세계꽃식물원
World Flower Botanical Garden



온양민속박물관
Onyang Folk Museum



아산 환경과학공원
Asan Ecological Environment Insect Museum



공세리성당
Gongseri Shrine Catholic Church



영인산자연휴양림
Younginsan Natural Recreation Forest